

정치인 조계종 방문 '러시'

5·31 지방선거 앞둔 불심잡기... 종지협 호소문 발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을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3일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당 김근태 최고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하루 전인 2일에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관 스님을 만났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일제갑치 다녀갔다.

이들은 저마다 불교계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불심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달라진 불교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는 하지만 하루에도 서너 명씩 무리로 찾아오는

정치인들을 일일이 응대하는 총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진지한 고민과 준비 없이 정치인들의 홍보용 '사진찍기 예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찾아오는 후보들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례적인 격려로 중심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득 스님은 "유력 정치인의 예방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러나 불교계가 자칫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무자

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선거철만 되면 유력 후보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스님이나 불자들의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계도하고, 사회나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 천주교 등 7대종단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지관)는 최근 선거 분위기가 일찍부터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9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일 비구니스님 '우의' 다진다

17일부터 日 선광사서 문화교류대회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스님들이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모임을 갖는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과 스님)는 5월 17일~21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노현 선광사(善光寺)와 유천사 등지에서 열리는 제 2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간 중 양국 비구니스님들의 활발한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모색하기 위한 '제 1회 한일 비구니스님 친선우호 교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 선광사 경내에서 열릴 이번 교류대회에 한국측에서는 명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을 비롯해 비구니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다카쓰카사 세이교오쿠 비구니회 회장 등 20여

명이 모인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양국가의 비구니회 회가 두나라의 여성 불교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명성 스님은 "처음으로 양국 비구니계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만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현황과 발전사 등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교류대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논의할 주제들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는 '정토신앙'을 주제로 5월 18일 연세대 신구약 교수와 일본 와세다대의 요시하라 고지 교수가 각각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산악인연합회 양촌동 총재 취임식

제6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양촌동 총장의 취임식이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운문사 유치원 '개교'

2008년 3월 125명 정원

경산시 사동에 건립추진 중인 운문사 부설 유치원이 5학년 125명 정원에 2008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5월 1일 최종 결정됐다. (본지 575호 3면 기사 참조)

운문사 총무 정호 스님은 "당초 요청한 11학급보다 훨씬 적은 5학급을 승인한 경산교육청 유아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유감이지만, 정식 개원 전까지 적정인원 확보와 양질의 교육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본지 576호 봉축특집호 A15면 봉축특집 중 '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을 '대승종 종정직무대행·부종정 천광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찰·부대·불교단체 힘 모아 법당 '우뚛'

경산 제2수교단 정심사 중창불사 낙성

군부대, 인근사찰, 지역불교단체 등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군법당 중창불사를 회향해 눈길을 끈다.

화제의 법당은 바로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제2수송교육단 호국정심사. 1992년 후방 부대의 운전병교육을 전담하는 제2수송교육단에 법당이 없어 장병들이 법회를 못 본다는 소식을 접한 부대 인사들이 불을 보아야만 했다. 또한 누수, 누전 등의 위험으로 보수공사가 절실했다.

다행히 부대 안으로 대구부안간 신고속도로가 풀리면서 공사를 맡았던 SK건설이 현장 사무소를 부대에 기증해 두달전 현재의 법당을

허물고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현장 사무소 건물들 그대로 옮겨와 120여평의 법당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중창불사를 시작하자 여기저기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 우선 수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대 외곽지인 법당까지 파이프를 매설했고 불당과 내부 인테리어, 보일러 시설, 법당 주변 환경 조성 등 운전 불자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중창불사를 시작한 이후 정심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모연에 들어가 부대 인근 대승사, 장암사, 안흥사, 삼보사 등 많은 사찰과 2군사령부 호국 무열사 신도회, 연꽃선우회, 대구경북군불교진흥회, 수경건설, 라이프산업 등 후원으로 4월 29일 드디어 호국 정심사 낙성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법당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봉은사 대운, 석가사 경암, 은혜사 총무국장 혜중, 장암사 주지 보광, 수정사 일



호국정심사는 4월 29일 중창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선진 법사, 보광·혜중·지성 스님, 김병식 부대장, 이근철·유상준 장군.

론, 삼보사 수현스님과 군종교구 정선진 상임위원, 호국 무열사 장상경 법사, 2군사령부 이근철 장군, 김병식 제2수송단장 유상준 예비역장군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였지만 법회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이인 호국 정심사 문춘자 상임지도법사와 이인환 유마회장. 장병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법회를 볼 수 있고 새로운 법당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기 때문이다.

이날 낙성법회에서는 최경집 대구경북군불교진흥회와 문춘자 호국 정심사 상임지도법사가 조계종 군종교구 일면스님의 감사패를 정선진 상임법사로부터 받았고 최태열 호국 무열사 후원회장과 이인환 호국 정심사 유마회장이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법당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이왕우 수경건설 대표, 박상현 라이프산업 대표, 이운건 연꽃선우회, 박형용 상사, 열천호 상사가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두식 기자 doobit@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고실선 요강을 준수한다

"신나는 찬불가 신나는 군생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군부대에 노래방기기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원장 해월)은 지난 4월 22일 찬불가 노래방 기기 1대를 31사단 호국 관음사(군법사) 법당에 기증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마음선원 신도회 최성후 회장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는 그대로가 부처님 가르침이다"며 "찬불가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국토방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당 군법사도 "노래방 기기 하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전달하는 모습

나로 엄숙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던 법당이 부드러워졌다"며 "향토사단 특성상 신병 훈련을 받는 장병이 많은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가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 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원: 소외된 군법회를 위한.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 동참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ARS: 060-700-0108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모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헤갈릴까 후회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요,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澗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이다" (감탄하시었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회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봄이 그냥 오듯 꽃도 그냥 핀다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크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는 소리

법정 무비 성수 혜국 우룡 일오 원담 명정 인환 혜성 지중 대효 고산 지안 금산 대원 혜정 범룡 각성 정광 암도 지유 지관 수안 현산 해남 명성 월은 고우 지용 정천 묘엄 성타 묵산 월주 지환 천운 상륜 해산 진철 해거 정무 천통 보성

장영섭 기자가 발로 뛰며 쓴 글은 불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문외한이 있어오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작가의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불교의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생활에 갖들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뇌와 번뇌를 날려버릴 지혜가 구름마디 들어 있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한때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위원 · 정월스님 시골이야기 저자)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336쪽/15,000원

최신간

www.ssd.co.kr TEL: (02)3443-7233~4 FAX: (02)3443-2683 **대산출판사**